

□ 탐 방 □

「아이큐브」

서강대학교 낭종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말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주)아이큐브를 방문하였는데, 아이큐브 기술 연구소 소장인 박승운 박사가 반갑게 맞이하여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먼저 “아이큐브”라는 회사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아이큐브”는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Information, Intelligence, Innovation의 앞에 글자를 따서 I³(iCUBE : 아이큐브)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최근 유행하는 닷컴이 붙은 회사와는 차별이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공중과 방송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전자공학에 속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공중과 방송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프로그램 편집 및 송출, 수신 등에 필요한 기기들이 모두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전산학 분야의 기술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큐브는 5년전인 1995년 4월에 이런 디지털 방송에 대한 컴퓨터 기술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디지털 방송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디지털 방송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즉, 테이프가 없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라 할 수 있다. 아이큐브는 지난 98년 IMF 위기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위기를 헤쳐 나와서 작년에는 21억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설정한 70억 매출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어 가고 있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아이큐브는 지난 5년여 동안 방송 환경의 자동화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정실 자동송출 시스템, 광고 자동송출 시스템, 네트워크기반의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 방송용 비선형 편집기, 디지털 비디오 라이브러리 등을 개발하여 이를 방송 시스템에 구축하였다. 또한 방송국 시스템의 자동화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방송 솔루션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1998년에는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선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대화형 서비스 연구실이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과학기술부 주관의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선정되어 “디지털 위성/지상파 방송을 위한 대화형 서비스 기술연구”라는 연구 주제로 해당 부문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런 디지털 방송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컴퓨터 전공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 연구회”를 결성하여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술중심의 모험기업답게 2000년 현재 총 직원 40명 중 27명이 연구개발인력이며 이중 박사 2명, 석사 12명 등 전산학 전공의 고급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아이큐브의 비전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대화형 데이터 방송 솔루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 부서는 4개의 실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신회원, E-mail:jhnang@ccs.sogang.ac.kr

멀티미디어실에서는 방송국과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V 편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비선형 편집 시스템을 KBS와 공동개발하여 1차년도 개발을 마치고 오딧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2차년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비선형 편집 시스템은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그동안 사용하던 여러 개의 테이프를 가지고 편집하는 대신 여러 테이프에 실린 내용을 컴퓨터에 각각 파일로 저장한 후에 이 파일들을 조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비선형 편집 시스템은 테이프를 바꾸고 되감는 등의 과정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편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서 국내 방송국에서도 점차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가정용 DV캠코더에 녹화된 내용을 일반 컴퓨터에서 편집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개인용 편집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여 SOTEC이라는 일본 PC업체에 10월 중으로 번들할 예정에 있다.

방송자동화실에서는 방송국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상파 및 케이블 TV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 개 이상의 채널을 동시에 송출하고 천개이상의

송출/제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송 자동송출 시스템, 광고 송출의 순서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자동으로 송출할 수 있는 광고 자동화 시스템, 방송용 비디오서버 시스템인 디지털 비디오 라이브러리, 뉴스의 제작과 편집을 테이프없이 편집에서 송출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통합관리하는 뉴스룸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미 방송국에서 사용중이며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고있는 방송도 아이큐브의 솔루션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일 수가 있을 것이다.

대화형서비스실은 1999년부터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되어 디지털방송시대를 대비한 데이터방송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방송 셋탑용 미들웨어를 개발하여 셋탑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자바와 XML에 기반을 둔 데이터방송을 위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 송출을 위해서는 데이터방송용 데이터서버를 한국방송공사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을 위한 각종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데이터방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뉴미디어실과 공동으로 데이터방송서비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